

## 트럼프 이후 미국의 인종주의에 대한 전망

안지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의 야심 찬 재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트럼프가 끊임없이 토해내던 인종 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발언들을 들어야 하는 고역은 이제 끝났다. 적어도 그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만큼 자주 듣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트럼프가 “괴물” (지겨울 정도로 많고 많은 이 상투적 말 속에는 다양한 인종주의적, 여성혐오적인 함의들도 담겨 있지만, 이 상투어는 동시에 하위계층(subaltern) 흑인 여성들에 대한 이중적인 차별을 환기하는 매우 역겨운 말이기도 하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혐오 발언을 ‘흑인여성혐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라고 공격했던 카말라 해리스는 전 세계와 미국의 언론으로부터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게다가 해리스는 여성일 뿐만 아니라 흑인계 미국인이기도 하고 남아시아계 미국인이기까지 하다. 이 흥미진진한 극적 반전 속에서 우리는 해리스가 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 사건을 미국의 인종과 젠더 평등이 진일보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 상징적인 사건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이 일은 팬데믹의 한 복판 속에서도 경찰의 잔인한 과잉진압에 희생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계기로 전 세계인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가 전례 없이 집결되었던 6월의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후 BLM으로 표기) 운동과 인종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되돌아보게 한다.

조 바이든이 당선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해리스가 유리천장을 깨게 된 것은 미국이 젠더와 인종적 평등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가는 상징적인 사건임이 틀림없다. 또한 선거결과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재임기간 동안 뽀뽀하리만치 노골적인 백인우월주의를 표방하며 유색인종들에게 적개심을 표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성적 거리두기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인 오드리 로드가 진작에 토큰리즘(tokenism)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유색인종 여자인 해리스의 부통령직이 가시적인 토큰리즘의 기호로 악용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려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 지난 12년간 미국의 인종적 지형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노파심이라기보다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지극히 현실적인 것임을 또한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권력의 자리를 꿰차게 된 한 명의 흑인/남아시아계 여성의 등장은 노예제 보상문제(reparation)나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와 같은 논의에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편리한 “토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득권 세력은 해리스를 이용하여 버락 오바마 발 데자뷰를 재현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릴 것이므로.

오바마가 대통령직에 당선되자마자 우파 정치인들과 보수 싱크탱크들이 입을 모아 드디어 미국에 탈인종(post-race) 사회가 도래했다고 외쳤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주의자(Trumpist)들이 미국에 탈인종사회가 또 다시 도래했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종말이 왔다고 연이어 외칠 순 없는 노릇이므로) 미국인들은 한 명의 흑인(엄밀히 말하자면 혼혈)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수백 년간 제도적으로 공고히 고착된 인종주의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난 몇년간 진통을 겪으며 체험하였다. 한 명의 흑인/남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의 존재가 미국의 인종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미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를 맹렬히 지지한 미국인들이 7천만 명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추악한 인종주의의 실체를 은폐하고 넘어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인종주의, 여성혐오주의적 언어, 세계관, 정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이 아니다. 트럼프의 그러한 면모 때문에 지지를 표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주의는 여전히 살아있다. 미국의 인종주의도 여전히 살아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노골적인 인종주의와 여성혐오주의를 얼마나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고, 더 나아가 인종적 불평등이 곧 “미국적인 삶”(American Way)이기를 원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 위험에 처한 흑인들의 몸과 “의지의 부재” (“anti-will”)

미국 역사는 사지가 절단되고 부상당한 흑인들의 몸으로 가득 차고도 넘친다. 기나긴 항해를 거치며 노예선 위에서 바다로 투척된 사체들, 200년 이상 지속되었던 노예제 치하에서 착취 당한 검은 몸, 남북전쟁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린치 당하고 화형 당한 흑인들의 몸,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민권운동 기간 동안 고문 당하고 폭압에 짓눌린 몸, 최근 SNS로 우리 시야를 온통 뒤덮은 플로이드의 충격적인 죽음의 잔상 등은 모두 미국 역사에서 흑인들의 몸이 얼마나 오랫동안 위태로움에 처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 흑인들의 육체적, 영적 고통의 깊이는 흑인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실감나게 재현된다. 다양한 문학 텍스트 속에 찢겨나가고 절단 당한 흑인들의 사지가 우리를 압도한다. 예컨대 베이비 석스는 신체 부위를 하나 하나 명명하며 흑인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백인]은 밭줄에서 풀러난 곳곳한 우리들의 목을 사랑하지 않으니” (토리 모리슨, 『빌러비드』 104) 우리 자신의 몸을 사랑해야 한다고 외친다. 시인 마이클 하퍼는 “섹스 손가락 발가락,” “사라진 성기”와 “병든 간” (『사랑하는 존 콜트레인에게 부치며』)을 시적으로 형상화하며 흑인 남성성이 파괴되어 가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 시인 그웬돌린 브룩스는 린치 당한 소년의 어머니가 “개죽음을 당한 아들에게 입을 맞추며” (『에밋 킬의 발라드의 마지막 4행』)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표하는 모습을 통해 14살짜리 소년 에밋 킬의 죽음을 기린다.

흑인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위와 같이 열거한 이유는 인종주의 역사 속에서 흑인들이 명백한 피해자임을 암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당연히 노예제는 오래 전 1865년에 폐지되었고 흑인들의 법적 위상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었다. 물론,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종분리제도(Jim Crow)로 인해 흑인들은 여전히 이등시민으로 처참한 차별 속에서 생존을 모색했다. 문학 비평가 사디아 하트만은 『종속의 장면』이라는 저서에서 노예제 폐지 이후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미명 하의 또 다른 종속”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민권운동의 여파로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흑인들의 기본권은 복원되었다. 이 때에도 법적인(*de jure*) 권리는 복원되었지만 실제로 실행(*de facto*)된 것은 주마다 달랐고 오랜 세월 지체되었다. 반면, 차별 철폐 조치가 효력을 갖게 된 이후 흑인들은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흑인 인구 가운데 전문가와 관리자 층이 민권운동 이전보다는 증가했다. 하지만 20세기 말과 21세기에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인종과 상관없이 계층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도심지역 빈민가의 여건도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으며 대도시들의 젠트리피케이션 확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유일한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게토에서도 축출되는 등 빈민층은 사회의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다. 동시에 대량투옥(*mass incarceration*)은 흑인사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최저층(*underclass*)은 법적으로 시민사회에 재진입할 수 없는 제도가 고착화되어 가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늪에 빠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학자 올란도 패터슨이 “사회적 죽음”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흑인의 처지에 대한 진단이 흑인들을 악마화하고 유아로 취급하는 사회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비판적 인종이론가인 파트리셔 윌리엄즈는 이렇게 말한다. “노예제에서 배태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흑인들 (혹은 유색인종들)은 자유의지가 없다는(*anti-will*) 개념 속에 부리 내리고 있는 신념체계이다. 이것은 순수의지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다. 끊임없이 의지가 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은 거의 치명적인 특성을 불어넣는 것과 다름이 없다” (『소유의 대상이 된다는 것』 218-9). 주체성이나 존엄이나 의지가 없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흑인들을 규정하는 인식체계를 이해한다면 흑인들에 대한 공권력의 제도적, 일상적 폭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에 발생했던 트레이본 마틴의 죽음과 이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다. 흑인들은 주체성이 없는 유아적이고도 위험한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부리 깊은 인식체계를 바탕으로 인종차별을 제도화한 미국 역사의 연속성에 놓인 사건들로 이해해야 한다. 갑자기 이러한 사건들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반흑인적 사고가 흑인 몸을 경시하는 과잉진압으로 이어져 왔고, SNS로 말미암아 이 사건들이 즉각적으로 전파되고 조명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결집되어 BLM 운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 BLM은 21세기의 민권운동인가?

BLM은 1960년대 민권운동 이후 가장 유의미하고도 가시적인 풀뿌리 운동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짙고 넘어가야 할 점은 BLM이 트럼프의 반동적인 언행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된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레이본 마틴의 죽음은 오바마 재임 시 있었던 일이다. 오바마가 세상을 떠난 마틴에게 깊은 연민과 동정을 표했던 연설을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오바마는 “트레이본 마틴은 35년 전 나일 수도 있었다” 라고 마틴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애도를 표했다. 하지만 BLM은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또한 BLM은 애당초 각기 성격이 다른 다양한 시민운동 기관들의 연대를 통해 탄생했기 때문에 단단하고 조밀한 정치적 조직의 위상을 갖추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LM은 민권운동 이후 민권운동에 가장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된 사회운동이다. 전 세계적으로 반흑인성과 제도적인 인종주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거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단연 성공하였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세상을 뒤흔들었고, 6월에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도시에서 플로이드의 죽음을 애도하며 분노하는 함성이 들려왔다. “심오한 무엇인가가 군중을 흔들어 놓았다...모두 애잔함을 느꼈고 노래는 우리 모두를 깨어나게 했다” (『보이지 않는 사람』 453). 랠프 앨리스의 소설 속 화자가 경찰에게 죽음을 당한 자신의 동지 클리프튼의 죽음을 애도하는 할렘의 군중이 “초월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BLM을 지지하는 분노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다. 순간, 전 세계가 BLM을 열렬히 지지하는 듯하였다.

BLM이 더욱 가시화되고 미국 교외의 집 앞 마당에 BLM 슬로건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지만, BLM이 더 큰 위력을 갖는 사회변혁운동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변혁을 이루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려면 BLM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 애돌프 리드는 그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BLM이 과연 존립 가능한 정치운동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비판적 의견을 개진해 왔다. 리드는 BLM이 흑인 민족주의의 수사에 의존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인종적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계급적 성찰이 없었음을 지적한다. 리드는 반인종주의적 정서에 의지하는 것은 “계급정치에 대한 다른 종류의 평등주의적 대안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일종의 계급정치이다”라고 평가하며 “반인종주의적 정치는 사실 신자유주의 안에 포섭된 좌파정치”라고 논한다 (『인종적 괴리』). BLM과 거리를 두는 또 다른 정치학자 시드릭 존슨도 “BLM은 강력한 정치적 힘이라기보다 정서에 치중하는 운동이다” (『BLM의 승리』)라고 주장하며 비슷한 논변을 펼친다. 리드와 존슨이 BLM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BLM이 진보적인 백인들의 죄책감과 흑인들의 분노가 맞물려 불을 지피면서 인종적 불의(racial injustice)에 반인종주의적 “감정”과 정서로 맞서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자세는 계급적 불평등을 경시하고 흑백 노동자 계급의 연대 형성이 시급한 것을 간과하여 결국에는 운동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자유주의 체제 안으로 고스란히 포섭된다는 점이다.

BLM이 현재 미국에서 인종적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요인을 간과하고 감정과 정서에 의존하는 반인종주의를 기치로 삼는다는 비판은 충분히 타당하다. 하지만 리드와 존슨이 BLM을 추동하는 감정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싶다. 요컨대 BLM이 구체적인 정책을 엮어내는 정치적 변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풀뿌리 운동들은 사회적 변혁을 열망하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감정”들이 없이는 이 운동을 추동하는 힘도 잃게 될 수 있다. 감정과 정서가 그 자체로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폭발적인 감정과 정서는 제도적인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나타내는 집단적인 인식의 징후라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리드와 존슨의 비판은 BLM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해시태그와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되고 표현되는 “기분 좋음” 혹은 “자기의(self-righteousness)”를 소비하거나 그것으로 자족하게 될 위험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겠다. 만약 해시태그로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면, 문제는 이러한 영역에 안주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트럼프 이후 시대에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사회변혁운동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지 일 것이다.

## “긍정적인 평화(Positive Peace)”를 향해

말콤 엑스는 미국의 꿈은 미국의 악몽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놀랍게도 「나에게 꿈이 있다」라는 연설문으로 가장 잘 알려진 마틴 루서 킹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미국의 꿈이 악몽으로 변질되었다고.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악몽은 인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림돌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진보적인 백인들(white liberals)은 BLM의 목표에도 동의하고 해시태그와 SNS로 BLM에 대한 지지를 열정적으로 표하며 적극 동참하면서도 기득권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직면하는 것에 저항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흑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고 외치며 연민을 표현하는 것 자체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킹 목사의 또 다른 글 「버밍엄에서 보내는 편지」를 상기해 보자. 킹 목사가 언급했던 “중도의 백인”들이란 지금 진보를 자처하는 백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들은 “정의보다는 ‘질서’에 더 헌신하며 정의가 실현되는 긍정적인 평화보다는 긴장의 부재를 뜻하는 부정적인 평화를 선호한다.” 이들은 질서정연한 교외의 집에 앉아 “부정적인 평화”를 누리며 안전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화자가 나지막하게 되묻고 있듯이, “주파수가 낮은 곳에서 내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필자 소개** 안지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안지현 교수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였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2003)를 취득하였다. 하버드 옌칭 연구소와 풀브라이트 재단, 그리고 미국 에모리 대학 소재 제임스 웰든 존슨 인종과 사회변혁 연구소로부터 연구지원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국학 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인종 정치(racial politics)가 문학과 문화와 교섭하며 작동하는 방식이며 인종이라는 범주가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상에도 관심이 있다. 흑인문학의 범위를 흑인 디아스포라로 확장하여 '흑인'문학을 탈식민주의 이론과의 접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 "The Birth of a Nation" (*The Clansman*) as the Birth of a White Imperial America" (미국소설 27권 1호, 2020), "A Strange Encounter: Postcoloniality in Korean Camptown Literature" (영어영문학 64권 1호, 2018), 「20세기 미국소설을 보는 한 가지 시선」 『20세기 미국소설 강의』 (신아사, 2019)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카를 필립스(Caryl Phillips)의 『강을 건너며』(*Crossing the River*) (시공사, 2016년)가 있다.

---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 (IPUS HORIZON)은 다양한 분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평화학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한반도뿐 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평화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이다. 인간, 사회, 국가, 환경 분야에서 평화 의제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 편집자 **구민교**(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mgkoo@snu.ac.kr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로 173 교육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el: 031-5176-2332 | FAX: 031-624-4751 | Email: tongil@snu.ac.kr